

#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과 일자리 질로 본 고용구조 변화

김복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2001년 이후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환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5세)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로 측정되는 고용률은 60%를 상회하였던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3년 이후 59%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정부는 2004년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04-08년 5년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통해 매년 40만 개씩 총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지난 4년간 일자리 증가는 총 1,294천 명(2004년 418천 명, 2005년 299천 명, 2006년 295천 명, 2007년 282천 명), 연평균 32만 명으로 나타나 목표에 미달하였다. 이러한 일자리창출 실적의 부진은 성장의 고용창출력 자체가 저하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거나 늦추었던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외환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3~97년 동안 연평균 44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일자리 증가는 연평균 22만 개에 불과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의 일자리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구조 측면에서 2001년 이후 제조업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었으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업의 양적인 고용증가가 서비스업에서의 불안정 고용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어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서비스업 고용은 악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최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의 질을 고려하는 일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고용창출력을 산업별로 비교하고, 일자리 ‘질(Qual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창출 구조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I. 산업별 고용구조 및 고용창출력

<표 1>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1993년 52.5%에서 2007년 현재 66.7%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1989년 27.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여 2007년 현재 17.6%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간 고용구조의 변화는 고용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고용구조의 서비스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3~2007년 동안 증가한 일자리는 총 4,421천 개로 이 중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6,087천 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오히려 861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일자리가 각각 1,678천 개, 1,090천 개 증가하여 이들 업종들이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등의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종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환위기 전후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후 일자리 증감의 명암이 바뀐 서비스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가사서비스업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86천 개, 63천 개의 일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가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 제고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구조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은 어느 정도일까? 산업별 고용흡수력과 고용창출력의 비교는 향후 일자리창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취업자 비중)

(단위: %, 천 개)

	고용비중 변화							고용증감			
	1993	1995	1997	1998	2000	2005	2007	'93~'97	'98~'07	'93~'0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03	2,218	4,421	
제조업	24.5	23.6	21.4	19.6	20.3	18.5	17.6	-443	-418	-861	
서비스업	52.5	54.8	57.8	60.0	61.2	65.2	66.7	2,714	3,373	6,087	
서비스업 대 분 류 별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4	18.6	18.7	19.2	18.1	16.4	15.7	709	-286	423
	H. 숙박 및 음식점업	7.0	7.9	9.0	8.8	9.1	9.0	8.7	679	141	820
	I. 운수창고 및 통신업	5.3	5.3	5.5	5.8	6.0	6.2	6.4	144	324	468
	J. 금융 및 보험업	3.4	3.6	3.7	3.9	3.6	3.3	3.5	196	27	223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8	4.5	5.4	5.5	6.4	8.9	10.0	460	1,213	1,673
	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2	3.2	3.1	3.7	3.6	3.5	3.4	89	139	228
	M. 교육서비스업	5.0	5.0	5.3	5.8	5.6	6.9	7.2	185	568	753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	1.5	1.6	1.8	2.0	2.8	3.2	42	411	453
	O.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0	4.2	4.5	4.4	5.9	7.6	7.9	193	897	1,090
	P. 가사서비스업	0.9	0.9	1.1	1.0	0.9	0.6	0.7	29	-63	-34
Q.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0.1	0.1	0.1	0.1	0.1	0.1	0.1	-12	2	-10	
O E C D	사업서비스업	13.7	14.8	15.7	15.6	16.3	18.7	20.2	656	1,240	1,896
	배분서비스업	45.1	43.6	41.9	41.7	39.3	34.7	33.1	853	38	891
	사회서비스업	18.5	17.9	17.3	19.1	18.5	20.3	20.7	304	1,120	1,424
	개인서비스업	22.7	23.7	25.1	23.7	25.9	26.3	25.9	901	975	1,876

주: OECD(2000)<sup>1)</sup> 서비스업 분류기준에 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다음의 <표 2>는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산업별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보통 산출액 10억 원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로 측정되며, 1993년 이후 연평균 3.6%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

1) OECD(2000)에 분류에 의한 4가지 범주의 서비스업은 첫째, 사업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이 해당되며, 둘째, 배분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은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이 해당된다. 셋째,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은 음식숙박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해당된다.

이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1993년 48.8명→2007년 29.4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용흡수력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서비스업에 비해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의 요인으로 생산성은 높아지면서 취업계수의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2)</sup>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제조업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이를 반영하여 1995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이 제조업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를 세부업종별로 보면, 배분서비스업만이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모두 취업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계수의 크기 및 하락추세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취업계수의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노동이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고용탄력성(GDP Elasticity of Employment)은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 정도가 둔화됨을 의미한다. 고용탄력성을 산업별로 비교하면,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2001년 이후 마이너스로 나타나 제조업에서의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에 의한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2004년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 취업자증가율이 서비스업 성장률보다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부문별로는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이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비해 높아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크고 고용흡수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이들 부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취업계수의 하락이 곧 ‘고용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흡수력이 낮아짐과 동시에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산업별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단위: 명/십억 원)

취업계수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배분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1993	48.8	56.9	51.0	19.3	95.3	32.8	106.3
1994	46.4	51.4	50.1	19.3	91.8	32.3	104.6
1995	43.7	46.7	48.5	19.1	86.5	32.6	101.3
1996	41.7	43.0	47.9	19.2	82.8	32.1	103.2
1997	40.6	39.4	47.6	19.5	79.7	32.2	106.9
1998	40.9	36.9	48.4	19.4	83.8	35.1	107.4
1999	38.0	31.1	47.1	19.6	75.7	36.0	97.9
2000	36.6	28.4	46.3	20.5	66.3	35.5	104.8
2001	35.9	27.6	46.0	21.5	62.8	35.6	102.4
2002	34.5	25.5	44.4	20.3	59.8	36.6	99.7
2003	33.4	24.0	43.8	20.6	57.6	38.0	97.3
2004	32.5	22.0	44.4	21.9	55.4	38.3	102.6
2005	31.6	20.3	44.1	22.2	53.2	39.0	103.8
2006	30.5	18.4	43.4	22.5	51.1	39.3	102.2
2007	29.4	17.1	42.3	22.6	-	39.0	-
'93 ~ 97	44.2	47.5	49.0	19.3	87.2	32.4	104.5
'98 ~ 07	34.3	25.1	45.0	20.9	62.9	37.1	102.0
'93 ~ 07	37.6	32.6	46.4	20.3	71.6	35.4	102.9
고용탄력성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배분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1993	0.191	-1.015	0.853	0.946	1.262	0.604	0.807
1994	0.373	0.071	0.752	1.023	0.549	0.563	0.820
1995	0.313	0.108	0.584	0.879	0.255	1.323	0.659
1996	0.306	-0.300	0.777	1.139	0.403	0.549	1.331
1997	0.373	-0.818	0.906	1.277	0.359	1.114	2.009
1998	0.879	1.731	0.621	1.428	0.389	-6.478	0.952
1999	0.189	0.129	0.569	1.413	0.204	1.947	0.275
2000	0.501	0.389	0.723	2.012	-0.043	-1.370	2.127
2001	0.513	-0.281	0.857	2.629	0.356	1.032	0.661
2002	0.397	-0.080	0.517	0.428	0.287	1.806	0.620
2003	-0.044	-0.154	0.147	2.191	-4.528	2.152	-15.424
2004	0.400	0.182	1.705	11.252	-0.123	1.221	11.589
2005	0.314	-0.185	0.754	1.260	-0.024	1.802	1.712
2006	0.259	-0.189	0.591	1.329	0.035	1.223	0.464
2007	0.245	-0.179	0.491	1.123	-	0.747	-
'93 ~ 97	0.313	-0.229	0.760	1.023	0.515	0.821	0.978
'98 ~ 07	0.235	-0.105	0.665	1.483	0.023	2.025	0.851
'93 ~ 07	0.270	-0.147	0.710	1.199	0.496	1.423	2.528

주: 1) 취업계수=실질GDP/취업자수×100

2) 고용탄력성=실질GDP 증가율/취업자수 증가율

3) 2007년 실질GDP는 잠정치이며, 2007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실질GDP(잠정치)가 별도로 나누어 제공되지 않아 배분서비스업(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음식·숙박업)의 2007년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은 산출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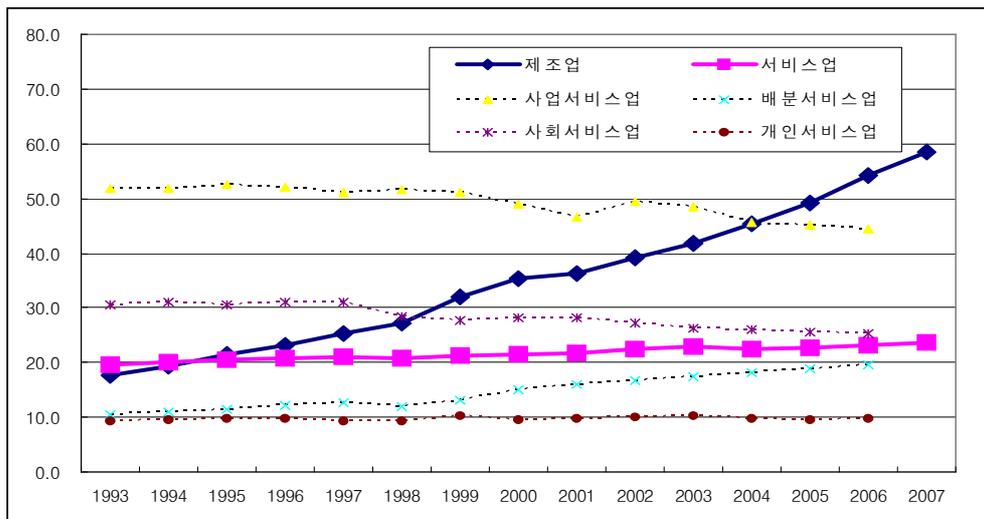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 II. 일자리 질로 본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

앞서 산업별 고용탄력성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2001년 이후 제조업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서비스업의 고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1993~2007년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4.2%p나 증가하였으며, 사업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02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부문의 신규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표 3>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파트타임근로자(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을 뿐만

[그림 1]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주: 1) 산업별 노동생산성=산업별 실질GDP ÷ 산업별 취업자수\*100  
 2) 2007년 실질GDP는 잠정치임.  
 3) 서비스업 부문별 노동생산성은 2007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실질GDP가 별도로 나누어 제공되지 않아 2007년 노동생산성은 산출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고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업의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자리창출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불완전한 취업구조를 개선하는 ‘더 좋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질적 측면에서의 서비스업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자. <표 4>는 산업(2 digit)과 직종(2 digit)으로 구분되는 셀을 하나의 일자리 범주로 보고 각 일자리 범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해당 일자리의 질(Quality)로 삼아 일자리창출 구조의 질적 측면을 산업별로 비교한 것이다. 물론 일자리 질의 지표로서 임금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수준은 고용안정성이나 교육훈련 가능성과 같은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3)</sup>

<표 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 명, %, %p)

	1993	1997	1998	2007	고용비중 변화			
					'93~97	'98~07	'93~07	
제조업								
전 체	4,014	3,784	3,264	3,520	0	0	0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66.2	65.3	65.0	69.6	-0.9	4.6	3.5
	임시직	24.5	26.2	26.1	22.8	1.7	-3.3	-1.7
	일용직	9.3	8.5	8.9	7.5	-0.8	-1.3	-1.8
파트타임근로자	4.2	4.7	6.7	6.9	0.5	0.2	2.7	
서비스업								
전 체	6,221	7,730	7,558	10,780	0	0	0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62.2	55.0	52.4	52.2	-7.2	-0.2	-10.0
	임시직	31.6	37.4	38.5	37.8	5.8	-0.7	6.3
	일용직	6.3	7.6	9.1	10.0	1.3	0.9	3.7
파트타임근로자	6.8	7.6	9.4	15.1	0.8	5.8	8.3	

주: 파트타임근로자는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본조사(1993~2007년), 부가조사(2000~2007년))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별 셀의 중위임금을 구한 후 분석대상 초기연도인 1993년 일자리를 서열화하여 일자리 3분위를 결정한 다음 비교연도의 일자리창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질의 지표인 임금수준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0~2007년)’에서 조사된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별 개별연도 임금이 소비자물가지수(2005년 불변가격)를 고려하여 계산한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이다. 산업중분류-직종중분류 셀을 하나의 일자리 단위로 보고 있으나 2000년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구산업(직종)과 신산업(직종)을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3~2007년까지 총일자리 변동 3,953천 개 가운데 중간일자리는 17.9%(706천 개)에 불과한 반면, 상위일자리는 53.0%(2,095천 개), 하위일자리는 29.1%(1,152천 개)로 나타나 중간일자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U자형의 일자리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4) 고용비중으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면, 중간일자리는 -8.0%p 감소한 반면, 하위·상위일자리는 각각 1.1%p, 6.9%p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뚜렷한 U자형 일자리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일자리 변동(1993-2007)

(단위: 천 개, %p)

	1993	1997	1998	2007	고용량 변화			고용비중 변화		
					'93~'97	'98~'07	'93~'07	'93~'97	'98~'07	'93~'07
전 체	11,923	13,387	12,283	15,876	1,464	3,594	3,953	0	0	0
하위일자리	2,946	3,639	3,263	4,098	694	835	1,152	2.5	-0.8	1.1
중간일자리	5,974	6,232	5,464	6,680	258	1,216	706	-3.6	-2.4	-8.0
상위일자리	3,004	3,516	3,556	5,098	512	1,542	2,095	1.1	3.2	6.9
제조업	4,005	3,776	3,257	3,498	241	-229	-507	-5.4	-4.5	-11.6
하위일자리	1,014	978	801	721	-36	-80	-293	0.6	-4.0	-4.7
중간일자리	2,313	2,030	1,712	1,753	-282	41	-559	-4.0	-2.4	-7.6
상위일자리	679	768	745	1,024	89	280	346	3.4	6.4	12.3
서비스업	6,216	7,727	7,555	10,708	3,154	1,511	4,492	5.6	5.9	15.3
하위일자리	1,731	2,469	2,277	3,219	738	942	1,488	4.1	-0.1	2.2
중간일자리	2,335	2,746	2,677	3,695	410	1,017	1,359	-2.0	-0.9	-3.1
상위일자리	2,149	2,512	2,601	3,795	363	1,194	1,646	-2.1	1.0	0.9
기 타	1,702	1,885	1,471	1,670	-32	199	182	-0.2	-1.5	-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1993~2007년), 부가조사(2000~2007년), 각년도.

4) 고용창출 구조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자리 분포 변화에 주목하여 산업-직업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이 일자리에 분포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나 중간임금을 일자리 질의 기준으로 하여 일자리를 10분위, 5분위, 3분위 등으로 서열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U.S.Council of Economic Advisors(1996), Wright and Dwyer(2000, 2003), Ruth and Dwyer(2002), Spitz(2005), Goos and Manning(2007) 등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서열화된 일자리수를 분석 시작연도인 1993년의 근로자 분포에 따라 하위일자리는 1~25%, 중간일자리는 26~75%, 상위일자리는 76~10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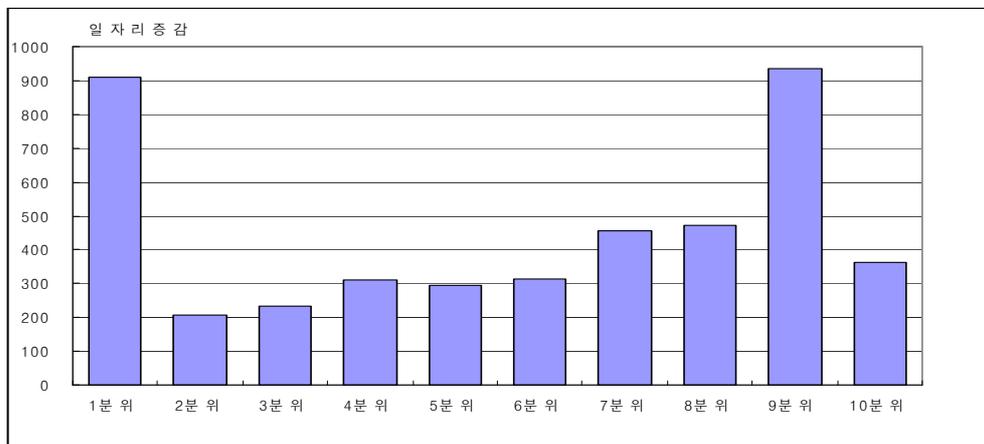
한편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총일자리 변동은 3,594천 개로 이 중 하위일자리는 23.2% (835천 개), 중간일자리는 33.8%(1,216천 개), 상위일자리는 42.9%(1,542천 개)를 차지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1993~1997년)에 비해 하위일자리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상위일자리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일자리 변동(1993~2007년)을 고용비중 변화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하위·중간일자리가 -507천 개, -293천 개 감소한 반면, 상위일자리는 346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양극화 곡선이 J자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하위·상위일자리가 각각 1,488천 개, 1,646천 개 증가한데 반해 중간일자리는 1,359천 개 증가한 것에 불과해 U자형의 양극화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표 4>를 통해 제조업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진전되면서 반숙련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위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주로 하위·상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별 일자리 창출구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에서의 중간일자리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간일자리의 업종별 분포와 일자리 변동은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비중 변화를 비교하면(표 5), 1993~2007년 동안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배분·사회·개인서비스업 모두 고용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고용비중이 0.8%p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사회서비스업 일자리창출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림 2] 서비스업의 일자리 10분위(1993~2007년)

(단위: 천 개)



주: 서열화된 일자리를 10분위로 나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1993~2007년), 부가조사(2000~2007년), 각년도.

<표 5> 서비스업 부문별 일자리 변동(1993-2007년, OECD 서비스업 분류기준)

(단위:천 개,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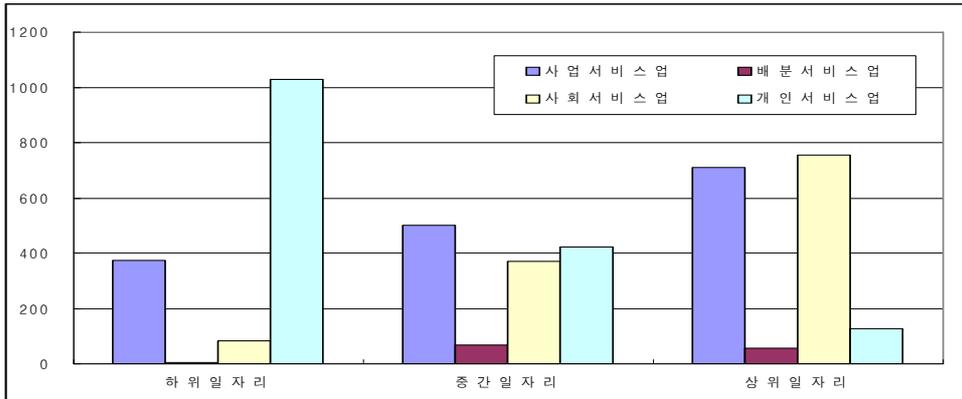
	1993	1997	1998	2007	고용량 변화			고용비중 변화		
					'93~97	'98~07	'93~07	'93~97	'98~07	'93~07
전 체	6,216	7,727	7,555	10,708	1,511	3,154	4,492	0	0	0
사업서비스업	1,152	1,637	1,578	2,736	485	1,158	1,584	2.6	4.7	7.0
하위일자리	167	275	252	541	109	289	374	2.4	3.8	5.3
중간일자리	409	576	565	910	167	345	501	-0.3	-2.6	-2.3
상위일자리	577	786	761	1,286	209	524	709	-2.1	-1.2	-3.1
배분서비스업	748	803	839	874	56	35	126	-1.6	-2.9	-3.9
하위일자리	10	19	23	14	9	-9	4	1.0	-1.1	0.3
중간일자리	526	536	539	593	9	54	66	-3.7	3.6	-2.6
상위일자리	211	249	277	267	38	-9	56	2.8	-2.4	2.3
사회서비스업	1,703	1,839	1,991	2,909	137	919	1,206	-3.6	0.8	-0.2
하위일자리	65	79	115	148	14	34	83	0.5	-0.7	1.3
중간일자리	456	551	581	825	95	243	369	3.2	-0.9	1.6
상위일자리	1,182	1,209	1,295	1,936	28	642	755	-3.6	1.5	-2.8
개인서비스업	2,613	3,447	3,147	4,189	834	1,042	1,576	2.6	-2.5	-2.9
하위일자리	1,489	2,096	1,887	2,516	607	628	1,027	3.8	0.1	3.1
중간일자리	944	1,083	992	1,368	139	376	423	-4.7	1.1	-3.5
상위일자리	179	268	268	305	89	38	126	0.9	-1.2	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1993~2007년), 부가조사(2000~2007년), 각년도.

[그림 3]은 일자리 분위별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하위일자리는 개인서비스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 중 산업코드가 55(호텔·여관업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와 93(아미용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에서의 하위일자리 증가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위일자리는 사업·사회서비스업에 의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서비스업에서는 산업코드가 74(법무관련 서비스업, 경영·교육상담업), 72(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6(손해·생명보험업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사회서비스업에서는 80(유아·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사무관련 교육기관), 85(병원 등 기타 의료업), 75(사업시설유지관리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및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상위일자리 증가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일자리3분위별 서비스업 부문별 일자리 분포

(단위: 천 개)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1993~2007년), 부가조사(2000~2007년), 각년도.

### III. 결론

본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서비스경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성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별로 비교한 후 임금수준을 고려한 일자리의 변화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2007년 현재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경제의 서비스화, 선진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OECD 회원국의 수준보다 여전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 취업계수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고용탄력성이 2001년 이후 마이너스(2004년 제외)로 나타나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증가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고는 있으나 2004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부문별로는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이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비해 높아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크고 고용흡수력이 점차 높아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이들 부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질(Quality)로 파악한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창출 구조를 보면 하위상

위일자리의 증가보다 중간일자리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U자형의 양극화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 향후 서비스업에서는 중간일자리를 더 많이 육성하여 일자리의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비중이 1993~2007년 동안 14.2%p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주지하여 향후 일자리창출 전략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좋은, 팬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KLI**

#### <참고문헌>

- 전병유(2007),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 김용현(2005), 「고용없는 성장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5(3), 한국노동연구원.
- 허재준(2007), 「한국경제 서비스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2004), 『한국경제 구조변화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 U. 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1996), “Job Crea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e U.S.Labor Market, 1993-1996”, *U. 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April 23.
- Wright, Erik Olin, and Rachel Dwyer(2000), “The American Jobs Machine: Is the New Economy Creation Good Jobs?”, *Boston Review* 25, 2000.
- \_\_\_\_\_ (2003), “The Pattern of Job Expansions in the United Sates : A Comparison of the 1960s and 1990s”, *Socio-Economic Review*.

〈부표 1〉 서비스업 중간일자리 산업별 분포

산업코드	1993	2007	일자리 변동('93~07)
50	95	33	-62
51	305	458	152
52	169	445	276
55	45	56	11
60	377	341	-37
61	38	25	-13
62	5	0	-5
63	84	135	51
64	23	92	70
65	16	27	11
66	164	12	-153
67	10	9	-2
70	49	139	91
71	9	20	11
72	16	97	81
73	0	0	0
74	144	605	461
75	17	21	4
80	280	411	131
85	155	362	206
87	0	31	31
90	14	39	26
91	122	194	72
92	70	0	-70
93	8	47	39
95	116	96	-19
99	3	0	-3